

지동설 주장하다 火刑당한 이탈리아 과학자

브루노 (富婁老 : 1548~1600년)

거의 1백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개화기 교과서 「윤리학교과서」(倫理學教科書, 1906년)에 이런 대목이 있다. —

“富婁老는 이탈리아의 학자이니 당시의 거짓 학문을 통렬하게 비판하다가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자 태연하게 법관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형 선고하는 것이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 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 했다. 葛里禮五는 이탈리아의 이학자이니 지동설을 처음 주장함으로써 교회지도자들의 반대와 압제를 받아 옥중에 갇혔으나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바를 끝까지 바꾸지 않아 지금 까지 학자들 사이에 미답이 되고 있다.”(교과서 당시에는 갈릴레이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박해받았다고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사실은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처음에 지동설을 굽히지 않고 책을 써서 교황청에 저항했다는 측면을 들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 인용된 글은 요즘 표현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원래는 거의 모든 단어가 한자로 쓰여있고, 또 표현도 옛날식 한글이어서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면 여기 한자로 남겨둔 두 단어는 무엇일까? 富婁老(부루노)와 葛里禮五(갈리레오)란 무엇인가? 그 발음만 써 놓아도 아마 많은 독자가 이 단어는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년)와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년)란 것을 짐작할 것 같다. 과학사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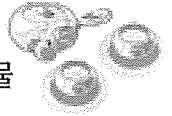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천문학자로 이단사상가

브루노는 갈릴레이와 비슷하게 뛰어난 과학자로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 보자면 그는 과학자라 부르기 보다는 신학자라는 편이 옳을지 모른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는 천문학자라 부를 수도 있고, 실제로 백과사전 「브리타니카」는 그를 이탈리아의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이며 또한 이단사상가로서 근대과학을 예고한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48년 나폴리 근처의 놀라란 곳에서 태어난 그는 1600년 2월 17일에 로마에서 화형당하여 죽었으니 세상에서 52세를 살았다.

가톨릭 세력이 세상을 휘두르던 시절, 서양에서는 자주 이단자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을 시행한 일이 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희생당한 소위 마녀(魔女, witch)들이 있고, 바로 그런 여성을 마구잡이로 붙잡아다가 처형한 일들을 역사에서는 ‘마녀 사냥’(witch hunt)이라 부른다. 브루노 역시 바로 비슷한 이유로 희생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필리포 브루노—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이름이 필리포였다. 1562년 로마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3년 뒤에는 나폴리에 있는 도미니코파 수도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름을 조르다노로 고쳤고, 1572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신학 공부를 계속했다. 그때부터 이미 그의 사상은 이단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금서를 읽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부인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말하곤 했다. 그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자 브루노는 1576년 2월 로마로 달아났는데, 거기서 엉뚱하게도



1548년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서 태어난 브루노(富婁老)는 가톨릭이 서방을 뒤흔들던 시절 지동설과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자로 몰려 1600년 화형으로 52세를 살다 세상을 떠났다.

1572년 사제서품을 받은 그는 1578년 제네바로 옮겨 개종했지만 개신교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파리로, 런던으로 전전하면서 신학과 우주관의 논쟁을 계속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교황으로부터 고칠수 없는 이단자로 판정을 받고 화형을 당했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내가 죽어가면서 고통받는 공포보다는 나를 사형언도하며 받는 공포가 더 두려울 것”이라고 하여 그 당시 협박에 못이겨 지동설을 포기한 갈릴레이와 대조를 이룬다.

그는 살인자로 몰리기도 했으며, 그는 다시 4월에 로마를 떠났다. 도미니코 교단도 떠나 이탈리아 북부를 방황하던 그는 1578년에는 제네바로 옮겨 책 교정작업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바로 개신교로 개종했지만, 개신교 역시 가톨릭 못지 않게 사상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판적이 되었다. 결국 개신교(칼뱅파)는 그를 체포하여 파문했고, 국외 추방을 명했다. 프랑스로 간 그는 1581년에는 파리에서 철학 교수가 되기도 했다.

개신교 개종 파리·런던 등 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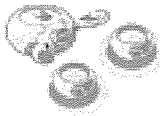
파리는 그에게 훨씬 자유로운 도시였다. 교수생활을 하면서 그는 1582년에는 세가지 기억술(mnemotechnical)에 관한 글을 발표했고, 이탈리아말로 쓴 희곡 「햇볕 든 사람」을 써서 당시 나폴리 사회의 도덕적 및 사회적 부패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1583년에는 그는 프랑스의 국왕 헨리 3세의 소개 편지를 들고 런던으로 가서 프랑스 대사를 만났다. 그리고 바로 옥스퍼드에 가서 그 해 여름 동안 몇 차례의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에서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다. 반발이 심하자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 프랑스 대사의 친구로 머물면서 영국의 정치가들과도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신학 연구와 우주관 연구에 힘써 1584년에는 「무한한 우주와 그 속의 세계들」을 썼는데, 당시까지 지배적이던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신학 체계를 비판도 하고 기독교 교리 속의 미신적인 요소를 집어 내기도 하였다. 1585년 10월

프랑스로 돌아간 그는 이미 그 곳 분위기가 그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대로 그의 주장을 말하고 그것은 논쟁과 싸움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그는 가톨릭의 대학자와 논쟁을 하게되었고, 1586년 5월에는 「소요파의 자연관과 세계상에 관한 120가지 비판」을 발표하여 아리스토텔레스를 내놓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독일 대학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하고, 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나름의 신학과 자연관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신교까지 자극하여 헬름슈타트에서는 그 곳 루터교가 그를 파문한 일도 벌어졌다.

1591년 8월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와 대학의 교수 자리를 찾았다. 마침 파도바대학의 수학교수 자리가 비었는데, 그는 이 자리를 얻으려고 파도바로 가서 기하학 강의 등을 벌였으나, 그 수학교수 자리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92년 그 자리는 갈릴레이에게 주어졌다. 베네치아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몬체니고의 고발이었다. 원래 그를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초청했던 몬체니고는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억술 강의도 시원치 않고, 게다가 독일로 돌아가 다른 책을 내겠다고 하자, 1592년 5월 베네치아 이단심문소에 브루노를 이단자로 고발해 버린 것이다. 그의 이단 사상은 우주는 무한하고 그 우주 저쪽에는 지구와 비슷한 다른 세상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그는 이단이라 단정되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여 지구는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베네치아에서의 그에 대한 심판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이 그를 직접 심판하기로 나서 1593년 1월 27일 로마 심문소 감옥에 가두면서 사태는 달라졌다. 그는 기를 쓰고 그의 주장이 결코 기독교의 신이나 우주 창조를 부정하거나 해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황청의 조사자들은 그에게 끈질기게 그의 주장을 정식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교황청을 설득하기에 실패하자 결국 자신은 아무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무엇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교황 클레멘트 8세는 브루노가 '고칠 수 없는 완고한 이단자'라고 판정하고 말았다. 1600년 2월 8일 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2월 17일 캄포 데 피오리에서 입에 재갈을 물린채 화형이 집행되었다.

지동설 주장하다 이단자로 처형

그의 영향은 19세기에는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많은 미신적 요소를 강조하고 고집이 강한 개성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왜 6년이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듯하다. 아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그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우주 무한을 주장해서 처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 모양이다. 그는 신학상의 오류 때문에 사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오류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단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마술사이고, 성령은 세계의 영혼이며, 악마도 구제될 수 있다는 생각 등등이라는 것이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어가면서 받는 공포 보다는 당신들이 나를 사형에 언도하며 받는 공포가 더 두려울 것”이라고—

바로 이 말이 구한국시기 교과서에 실린 앞에 인용한 말이다. 브루노를 굴복할줄 모르는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해석은 지금도 널리 퍼져 있다.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대중적인 세계사 책에는

‘신념을 지킬 것이냐 생명을 지킬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을 한 두 인물로 브루노와 갈릴레이를 예로 들고 있기도 하다. ‘지동설과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자’라는 죄목에 완강하게 저항하다 화형에 처해진 브루노와 달리 갈릴레이는 고문과 협박에 견디지 못해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동설 포기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다 죽은 브루노와 교회와 타협하고 목숨을 지킨 갈릴레이의 대비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나와 나 아닌 것의 싸움”(我와 非我의 鬪爭)이라 정의한 것으로 유명한 일제 시대의 대표적 역사학자 신채호(申采浩 1880~1936년)는 바로 그 말이 들어 있는 글 「조선사 총론」에서 이렇게 쓴 대목도 보인다. —“3백년 전에 지원설(地圓說)을 창도한 조선 학자의 주장이 있지만, 이를 후루노의 지원설과 같은 역사적 가치를 쳐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신채호가 후루노라 부른 인물이 바로 브루노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단재 신채호가 말하려는 생각은 브루노의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그에 영향받아 유럽에서는 지구 탐험이 크게 일어나고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가져왔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의 지원설은 그런 역사적 효과를 가져온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신채호의 해석은 아주 당연한 올바른 평가이다. 비록 신채호가 지동설(地動說)이라 할 것을 지원설(地圓說)이라 한 것은 잘못이고, 또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브루노인 줄 말한 것도 잘못된 정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글을 신채호가 일제 시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브루노의 이름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유명했었음을 말하는 듯하다. 1906년의 윤리교과서에서 보이기 시작한 그의 이름이 일제시대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7